

4 뉴스

글로벌 문화기술 일본문화 트랙, 일방적인 폐지 통보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국제】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의 일본문화 트랙이 학생과의 논의나 공지 없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에는 일본문화 트랙과 영미문화 트랙이 존재한다. 일본문화 트랙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소용)와 일본어학과의 융합, 영미문화 트랙은 소용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글커)와의 융합이다.

지난달 17일 외국어대학(외대) 학생회는 ‘제3차 미래발전위원회 회의 결과-논의 안건’ 게시물로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융합전공 개선 논의’를 공지했다. 공지는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 일본문화 트랙

이 2024학년도부터 참여하지 않고 영미문화 트랙인 글커가 주관한다”는 내용이다.

폐지 과정은 학생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지 없이 이뤄졌다. 폐지 내용은 융합전공 홈페이지와 일본어학과 학생회 SNS 등에는 공지되지 않았고 오직 외대 학생회 SNS에만 공지됐다. 지난 9월, 외대 학생회에서 진행한 외대 융합전공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일본문화 트랙 폐지는 교수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손지연(일본어학) 교수는 “현재는 아직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에

글로벌문화기술 융합전공 일본문화트랙 폐지 반대 서명

글로벌문화기술 융합전공 일본문화트랙 폐지에 반대하는 여러분의 입장을 구글폼의 서명을 통해 표현해주세요.

반대서명 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대서명은 익명으로(ex-홍XX 2020XXXXXX) 일본어학과 교수님과 외국어대학 학사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작성해 주신 의견은 일본문화트랙 폐지 반대를 요청하는 근거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익명으로 활용됩니다.)

Google에 로그인하여 진행상황을 저장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사진=반대 서명 구글폼 캡처본)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폐지를 결정하기까지 많이 고민했지만 소용과 일본어학과의 융합한 일본문화 트랙은 수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융합 전공 개설 전에는 학교에 각종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현재는 지원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문화 트랙 폐지에 반대하는 학생 사이에서 서명 운동이 일었다. 서명 운동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총 11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일본문화 트랙 학생 A 씨는 “소수의 몇몇 학생만 폐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은 SNS 게시물 보기 전까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11월, 손지연 교수의 연구실에 모여 융합전공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트랙 폐지라는 소식을 받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A 씨는 “취업 시 서류 제출 전공 학과 기재에

서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는 ‘글로벌 문화기술 일본문화 트랙 폐지 반대 입장 표명’이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폐지에 대한 사전 공지와 이유를 듣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졸업과 동시에 자신의 전공 학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학 생활 간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손 교수는 “현재 11명의 융합전공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기존의 커리큘럼을 유지할 것이며 졸업과 그 이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평가 교수연구 부문 피인용 지표 ‘고무적’

중앙일보 대학평가 부문별 분석

- ① 교수연구
- ② 교육여건
- ③ 학생성과
- ④ 평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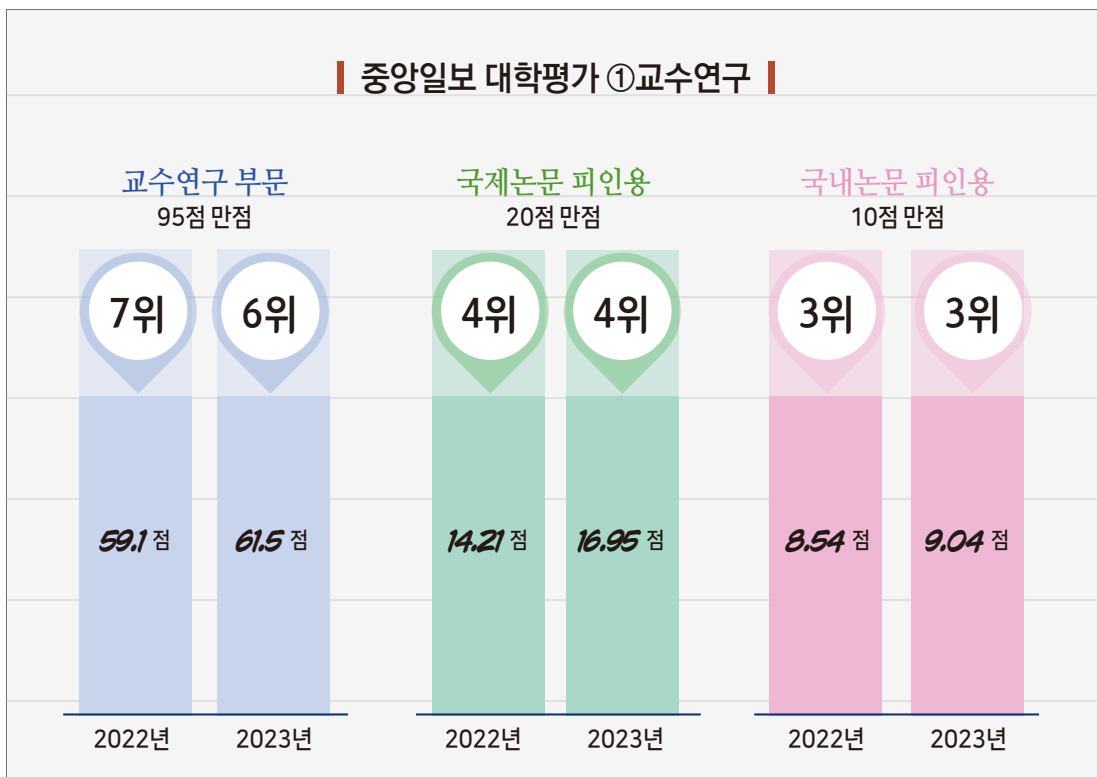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한 종합 6위에 올랐다. 종합 점수로는 7점 올랐고, 이는 상위 10위권 대학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그중 교수연구 부문은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총 53곳의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지난달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중 4개 계열 이상을 보유한 46개 대학의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대학평가는 ▲교수연구(95점) ▲교육여건(95점) ▲학생성과(80점) ▲평판도(30점) 등 4개 부문, 총 33개 세부 지표로 구성돼 총점 300점이 만점이다. 이중 교수연구 부문은 교수 논문 실적과 연구비, 기술이전 수입 등이 주요 지표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에서 제공받은 <2023 하반기 대학평가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교수연구 부문에서 61.5점을 받으며 평가대상 대학 중 6위에 올랐다. 작



년 대비 2.4점이 올라 한 단계 상승한 위치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 김성환 팀장은 “국제 논문, 국내 논문 피인용 동반 상승이 8위에서 6위로의 순위 상승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1기여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수연구 부문 세부 지표 10개를 살펴본 결과, 3개 부문(국제논문 피인용, 국내논문 피인용, 교수당 자체연구비) 점수가 상승했다. 우리학교 채택 기준으로 논문당 피인용을 봤을 때, 3개년 동안 국제논문당

피인용은 8.4, 9.8, 11.6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순위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4위에 해당한다. 국내논문 피인용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전체 순위 3위를 기록했다. 자체연구비는 전년 대비 23억이 오른 138억이 쓰였다. 전년 대비 2단계 올라 25위에 올랐다.

김 팀장은 “피인용 지수가 3, 4등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고무적”이라며 “연구의 양이나 질적인 부분은 어떤 수준에 다르면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

았나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7개 부문(교수당 교외연구비, 국제논문 게재, 국내논문 게재, 저역서 발간, 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기술이전 건당 수입액, 교수당 산학협력 수익)에서는 점수가 하락했다. 3개년 동안 국제논문은 907편, 1,036편, 1,025편이 발간됐으며, 국내논문은 658편, 662편, 641편이 발간됐다. 국제논문과 국내논문 수는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논문 총계로 따졌을 때 우리학교는 올해 전체 6위에 해당

한다.

저역서 발간은 전임교원의 저서와 역사의 수를 본다. 3개년 동안 저역서는 85권, 119권, 119권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권수가 발간됐다. 대학알리미 공식 기준으로 전임교원 수가 6위인 것에 비해 전체 대학 저역서 순위는 2위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산출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7단계 올라 3위에 올랐다.

3개년 동안 기술이전 수입액을 살펴보면, 47.8억, 46.7억, 51.5억으로 전년대비 4.8억 올랐으나 실적 상승과는 별개로 1위 대학의 실적이 올라 경쟁 대학인 우리학교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학협력 수입액 또한 292억에서 312억으로 전년 대비 20억 올랐으나 동일한 이유로 점수는 하락했다.

교수연구 영역과 관련한 우리학교의 2024학년도 대비 사항은 ▲자체연구비 지원 확대 ▲우수 신진 연구 인력 스카우트 ▲기술이전 수입으로 알려졌다.

학술진흥팀에 따르면, 자체연구비는 올해보다 22억을 더해 16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논문 수와 피인용 지수를 높이기 위해 우수 신진 연구 인력을 스카우트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이어 LaB 컨설팅을 통한 교수 보유 지적재산권을 창출하고 조기 기술이전을 추진해 기술이전 수입을 증대하겠다고 설명했다.